

##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이희연\* · 박태정\*\*

### 초 록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본질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9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결과분석을 위해 지오르기(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다.

분석결과,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전 생애 삶에서 사회적 배제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특히 가정폭력상황에서 극도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들이 경험해 온 사회적 배제의 본질적 주제는 6가지로서 나타났다. 6가지의 본질적 주제는 [불평등한 부부권력관계], [홀로 견뎌야하는 폭력], [폭력의 악순환, 용서의 딜레마], [가정이라는 폐쇄적 성역], [‘나’를 잃어버린, 예속된 삶], [뿌리 깊은 가부장적 폭력문화]이다. 즉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몰성적 사회와 가부장적 가치관에 의해 조작된 여성성을 강요당한 채, 주류사회의 뿌리깊은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심각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여 왔다. 또한 이러한 다차원적인 불이익과 차별속에서 여성의 인격과 주체성이 훼손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주제어: 가정폭력, 사회적 배제, 현상학적 연구, 질적연구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heeyoun@iscu.ac.kr)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withjoy@iscu.ac.kr)

## I. 들어가며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니다. 특히 가정폭력<sup>1)</sup>의 경우,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에 대한 어떤 제도적 개입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0년대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희생되었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살해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sup>2)</sup>. 이를 계기로 가정폭력으로 인해 많은 여성이 오랫동안 생존의 위기 속에 놓여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법적 장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그 결과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sup>3)</sup>

그러나 법의 제정을 통해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등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이 보완되어 왔지만, 여전히 가정폭력은 줄어들지 않는 추세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된 문제로 남아 있다.<sup>4)</sup>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정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손상 혹은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신적 측면에서의 각종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점이다. 가정폭력의 원인과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와 관련한 그간의 논의를 살펴보면,

- 
- 1)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상호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통상 형법상의 일반폭력 개념과는 달리 해석된다. 즉 가정폭력은 고정되고 한정된 상대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사되며 가정이라는 범위 내에서 주로 남성 가장의 권력관계에 의해 합법 혹은 묵인됨을 가장하는 특징이 있다(이동명, 200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이 같은 점은 발견되는데, 이 법에 의하면 가정폭력의 범위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한 행위로 규정되면서 매우 광의적, 포괄적인 폭력 개념이 인정되고 있다(김재엽, 1999).
  - 2) 대표적인 사건의 예로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아버지를 살해한 전경진 사건(1995), 가학적인 성학대를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김명희 사건(1995) 등이 있다.
  - 3)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이니만큼, 그 형태는 아내에 대한 폭력, 아동에 대한 부모 폭력 등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 4) 2007년에 실시된 전국 가정폭력 실태 조사결과에 의하면, 부부간 폭력발생 비율은 40.3%로서 부부 2.5쌍 가운데 1쌍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발생비율은 50.4%로서 2가구중 1가구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났다(여성가족부, 2008).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우울증(Gleason, 1993; 손윤정, 2004), 각종 정신 건강에서의 문제(김선아 외, 2003),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공격적 양육행위의 증가현상(신성자, 2001; 신민섭 외, 2004)등을 비롯하여, 대인관계의 기피 및 사회조직망으로부터의 고립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논의들은 가정폭력의 원인과 실태, 그리고 피해자로서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신체적 문제, 가족구성원간의 역기능적 관계요인 등을 주로 다루었는데(Yllo et al., 1988; 김승권, 1999; 변화순 외, 2001; 박영란, 2007), 이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본질적인 삶의 변화와 문제 양상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가정폭력은 물리적·정신적 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폭력을 겪는 과정 전반에 걸쳐 희생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사회구조적 불이익을 수반하고 있다. 폭력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삶을 살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자의에 의한 선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따른 각종 불평등과 어려움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인 여성에게 더욱 집중적으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즉 가정폭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피해와 더불어, 이런 문제를 경험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가 매개하는 우리 사회에서의 이중적 구속과 단절, 역차별과 같은 문제는 해당 여성의 삶 전반에서 또 다른 숨은 문제로 작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혹은 피해상황을 종적인 단면으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횡적 차원에서 가정폭력이라는 문제가 여성의 삶에 미칠 수 있는 본질적 장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물론 자립 이후의 사회적응 양상(류은주, 2009), 복지지원 혹은 직업훈련의 필요성과 관련된 연구 역시 활발하였지만(전석한, 2001; 장정자, 2007), 이는 서비스 개발 내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삶, 그 자체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대체로 기존의 접근방법은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개인과 가족이라는 테두리로 한정하여 인식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기초로 사회구조적 측면의 대안을 모색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sup>5)</sup>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단순히 피해자 내지 개인으로서 간주하기보다,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의 영위 가능성을 두고서 접근해 볼 때,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둘러싼 문제의 범위는 더욱 확대된다. 피해여성들은 자신에게 가해진 물리적 폭력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건강, 주거, 고용, 소득 등의 영역에 걸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폭력의 결과는 이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주지되는 것과 같이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은 대표적 소수자이며 오랜 차별과 불리를 경험해온 집단이다. 특히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에 의해 ‘가정’이 ‘사적 영역’으로 한정됨에 따라 여성은 출생 이후 결혼을 통한 또 다른 가정을 형성하는 데까지 물성적 권력관계에 노출·지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가정폭력의 가해-피해관계를 매도·미화하거나, 그 문제의 차원을 매우 사적인 것으로 제한시키게 되는 제2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은 이중구속과 같은 또 다른 희생과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여성이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적 차원의 불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체계로부터의 단절과 비자발적 고립과 연결되면서 사회적 배제로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것과 같이 지금까지의 접근방식에서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문제인식이 다소 부족하였고, 더욱이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겪게 되는 사회적 배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분석했던 연구들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겪어온 사회적 배제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궁극적인 문제예방과 사회구조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사회적 배제 경험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가정폭력에 따른 외연적

5) 최근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주의적 시각을 비롯하여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문제를 재인식하고자 하는 노력과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박영란, 2007).

문제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구체적으로 경험한 각종 문제(현상)의 본질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접근하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오르기(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을 통해<sup>6)</sup> 가정폭력 피해여성이라는 인식주체가 경험하는 의식작용으로서 사회적 배제의 본질적 의미를 찾고, 이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다차원적인 시각을 확보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 II. 이론적 검토

### 1. 사회적 배제의 개념

인문·사회과학에서 어떤 개념을 정의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규정된 정의에 대해 합의를 수렴하는 것 역시 어렵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 또한 통일되고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빈곤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서 간주할 수 있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대체로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포괄적인 접근법으로 이해되는 것을 볼 수 있다(문진영, 2004: 256).

사회적 배제 개념이 태동된 배경은 영·미에서가 아닌 프랑스로부터 비롯되었다.<sup>7)</sup> 당시 프랑스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후의 경제성장과 사회정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리지 못하는 국민들과, 사회보험체제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제외된 집단이 생겨났는데, 이를 지칭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Hills et al, 2002; 강신욱 외, 2005; 김영화 외, 2007). 이후 프랑스에서는 그 의미가 더욱 확대되면서 개인 혹은 집단 간의 의사

6)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은 살아있는 경험을 지향하며, 그 경험의 의미를 포함하여 그 본질을 밝혀 기술하는 데 목적을 둔다(신경림 외, 2005: 234).

7) 엄밀하게 판단한다면, 사회적 배제에 대해 학문적 논의를 처음 시도한 학자는 막스 베버이다. 다만 베버는 오늘날의 사회적 배제를 보는 관점과 달리 사회적 폐쇄(Social Closure)로서 이해하여, 한 집단이 지위와 특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는 시도로 파악한 데서 차이점이 있다(김안나, 2007; 문진영, 2004)

소통의 부재, 상호 인정과 소속감을 교환하지 못하는 몰이해의 상황까지를 뜻하는 것으로 넓혀졌고<sup>8)</sup>, 나아가 인종갈등, 소수자 문제를 비롯한 공간적 의미의 경제적 배제까지도 사회적 배제의 틀에서 접근하게 되었다.<sup>9)</sup> 사회적 배제의 개념 범위가 확대되고 활발하게 논의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역동성과 의미의 확장성으로 인해, 정의 내지 해석을 내리는 데는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과학 담론과 이데올로기,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동태적 개념이 바로 사회적 배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는 사회와 국가, 그리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각종 문제 현상을 입체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다는 면에서 오히려 중요한 특징이 된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는 저소득과 경제적 결핍뿐만 아니라, 건강, 노동시장에서의 배제, 가족해체, 교육과 주거의 불리, 사회주류와의 관계망 단절, 문화·심리적 단절, 공공서비스에서의 차별 등을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남기철 외, 2005:33-42). 그러므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만큼, 빈곤과 같은 특정 현상에 천착된 정의가 아닌, 복합적이고 통합된 시각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 배제는 실업, 교육, 서비스, 주택, 건강 등과 같은 총체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다차원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Silver, 1994; Jordan, 1997).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배제는 한 사회 안에서 개인 혹은 집단을 구분하는 카테고리가 아닌 전체 사회 안에서 역동적으로

8) 프랑스에서 사회적 배제 개념이 발달한 것과 관련한 좀 더 상세한 논의는 Loosely (2004)를 참고 할 것.

9) 사회적 배제 개념의 역사적 근원은 프랑스이지만, 그 발전에는 유럽연합 국제기구들의 기여가 컸다. 유럽연합은 회원국가간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주목하면서 국가간 정치, 사회적 협약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대표적으로 유럽사회헌장(The European Social Charter, 1989)에서 사회적 배제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고, 그 이후 리스본 정상회담에서는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유럽 사회모델의 중심요소로 규정되었다. 이런 점을 볼 때 1990년대 이후 사회적 배제는 유럽연합 국가 사회정책의 기초가 된 것으로도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유럽에서의 사회적 배제 개념의 특징과 그 발달과정 등을 다룬 주요한 논의로는 EC Commission(1998; 2001), Carter, C. (2000), Barnes, M. et al (2001), Mayes, D. (2001), Atkinson, T. (2002), McDevitt, Suzanne(2004)등을 참고할 것.

일어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다차원적 불이익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복합적이고 연쇄적으로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신명호, 2004).

사회적 배제는 단일 개념이라기보다 다양한 정치적, 학문적 맥락을 아우를 수 있는 있는 패러다임의 하나로서(Silver, 1995; Jackson, 1999). 정태적 속성과 동태적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런 만큼, 각기 다른 사회구성원과 이러한 구성원들이 속한 국가 및 사회의 상호작용에서 야기되어지는 과정적이고 관계적 특성을 함께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Ward, 2009:239-240).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할 때, 사회적 배제는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의 반대상황으로서, 경제,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의 배제를 포괄하며 개인이 배제되는 상태이자 과정이며(Burchardt et al, 1999), 동시에 기제(mechanisms)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문제해결의 초점을 둔다(de Haan, 1998; 12-13).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배제를 재정의 해보면, 한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에서 스스로 원치 않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사회권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누려야 할 각종 활동과 권리행사 등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당사자는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요컨대 사회적 배제는 빈곤이라는 정태적 현상으로부터 결핍화라는 동태적 결과까지를 아우르는 것이며, 박탈로부터 시작되어 배제로 이어지는 일련의 다차원적 과정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사회구조적 요인과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권적 이해로부터 접근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 2.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사회적 배제

가정폭력의 결과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라는 표면적 문제뿐만 아니라, 피해여성의 전반적인 삶의 나쁜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역동적이다. 또한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역시 매우 다양하며, 대체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가정폭력이 성, 권력, 빈곤, 실업 등과 같은 각종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Denzin, 1984:486),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 역시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고려될 수 없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odriguez et al., 2001:172). 즉 우울, 자아존중감의 저하와 같은 개인적인 문제와 더불어 사회지지체계의 감소, 빈곤 등이 동시에 일어나는 만큼, 이러한 것이 피해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하여야 한다(Dutton, 1992; Gleason, 1993; 김선아 외, 2003; 양현아, 2006).

이런 점에서 가정폭력이 진행된다는 것은 그 피해당사자를 둘러싼 각종 사회적 관계가 해체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험이 방치·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개인이 사회와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한 채 더욱 배제가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것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피해여성의 경제, 사회, 문화적 관계망 및 지지체계를 서서히 약화 혹은 단절시키게 되는데, 당사자가 이를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보여 진다.

무엇보다 한국사회에서 가정 내 권력과 자원의 배분은 가장인 남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남성생계부양자 가족구조를 기초로 하는 사회구조에서 ‘폭력’에 따른 결혼해체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자원의 박탈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즉 물질적 가족구조에서 남성이장을 중심으로 편제된 틀에서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은 비자발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각종 자원과 기회로부터 배제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빈곤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피해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비정상적인 상태’로 보는 부정적 인식과 편견은 당사자의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사회전반에서의 불리를 야기하며 지역사회로의 참여를 제한시키고 사회관계를 축소시키는 등,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면서 배제를 더욱 촉발시키게 하고 있다(송다영, 2003: 300-303).

이런 점에서 선행연구에서도 널리 알려진 것과 같이, 피해여성들이 대체로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자본 역시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토대로 본다면(이상규, 2001; 박희숙, 2002; 김명숙, 2008)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배제는 이와 같은 요인과 맞물리면서 누진되고 악순환 될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가정폭력은 노동자로서 여성의 건강한 직업활동에 장애로 작용하게 되어 기존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게끔 작용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여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 내 가학적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서, 폭력이 야기한 기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단절과 경제적 빈곤에 따른 건강한 자립의 불가라는 이중적 차원의 불리와 배제를 동시에 경험하게 한다(Riger et al., 2001). 이런 면에서 가정폭력이라는 현상의 전·후로 여성에게 작용되는 사회적 배제는, 외상적 치유와는 별개로 미해결 과제로 잔존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가정폭력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를 고려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사회적 배제는 가정폭력이라는 문제의 결과로도 나타나지만, 피해자인 여성은 이미 사회적 배제의 위협요인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전술한 것과 같이 여성은 가족 내 권력관계로 인하여 원가족에서부터 자원의 형성과 배분과정에서 배제를 경험하기 시작하며, 이는 사회체계에서의 성차별과 맞물리면서 여성의 사회적 배제는 더욱 심화된다고 보아야 한다(노혜진·김교성, 2008). 또한 빈곤여성의 가정폭력 노출빈도가 훨씬 높다는 점에서, 기존 빈곤과 불리의 상황이 해결되지 못한 채 가정폭력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여성 당사자에게 발생가능함을 알 수 있다(Tolman & Raphael, 2000). 이와 더불어 가정은 여러 측면에서 권력작용이 발생하는 공간인데, 이때 폭력을 매개로 발생하는 통제와 지배현상은 여성 당사자가 '사회'라는 공적 구조를 인식하는데 부정적인 작용을 한다(Sibley, 1995: 77). 즉 폭력이라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통제할 수 없다는 여성의 무력감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기능 발휘가 불가하다는 것으로 확장되며 나아가 사회 그 자체와의 단절·배제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주지되는 것과 같이 여성들은 이미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건강으로부터의 배제, 주거로부터의 배제, 자녀양육 책임에 의한 배제,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배제, 자아배제 등 다차원적 영역에서 중층적이고 누적적인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정미숙, 2007;

유현숙·곽현근, 2007), 가정폭력은 여성을 둘러싼 기존의 사회적 배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동인(trigger)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면이 있다. 요컨대 가정폭력과 사회적 배제는 원인인 동시에 결과인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의 외연적 문제가 치유된다고 할지라도 사회적 배제라는 또 다른 문제는 원인이자 피해로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을 접근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즉 가정폭력은 사회적 배제와 동시적 인과구조로 결합되면서 누적, 순환되는 것으로 그 관계적 특성이 나타난다고 보여진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주요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며 참여에 동의한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서 전체 9명이다. 널리 알려진 것과 같이 질적 연구는 양적연구와 달리 표본이 얼마나 대표성을 띠는지 또는 연구를 일반화 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보다는, 얼마나 깊이 있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이태진외, 2007:17). 질적연구는 근본적으로 연구대상을 다면적이고 심층적이며 빼놓지 않고 설명하려고 하며 이를 ‘빈틈없는 설명(thick description)’으로 명명한다(Geertz, 1973). 이런 점에서 연구대상의 숫자를 크게 하고 그것의 특징을 평준화하여 설명하는 양적 접근에 비해 참여자의 수 보다는 그들이 “경험”한 것의 깊이와 질이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로부터 획득되는 자료가 최대화될 수 있는 자를 선정하고자 유의하였다.

아래 <표 1> 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연구 참여자의 주요 특징으로는, 먼저 연령은 30세에서 52세까지로, 30대 3명, 40대 5명, 50대 1명이었다. 학력의 경우, 1명을 제외한 모두가 고졸이었고, 결혼 이전 노동시장에 참여했던 경험을 가진 참여자가 8명이었다. 현재 각기 다른 쉼터에 거주하거나, 독립주거를 하고 있었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징

구분	연령	직업 (결혼전)	학력	자녀	결혼과정과 폭력경험	현거주	혼인 상태
참여자 1	36	주부 (경리)	고졸	1남	남편:고졸, 공무원, 의치증, 술문제, 연예결혼, 임신 후 결혼, 결혼초 임신중 폭력시작	쉼터	재혼, 이혼 소송
참여자 2	30	주부 (경리)	고졸	2남	남편:중졸, 일용직, 반복실직, 술문제, 의치증, 고졸후 1년 경리일하다 결혼, 결혼 초 임신중 폭력시작	쉼터	초혼, 이혼 소송
참여자 3	41	주부 (경리)	고졸	3남1녀	남편:고졸, 절도전과 5범, 전기기술직, 전파상 사업, 부도, 술문제, 의치증, 고2때부터 연예, 오랜 동거후, 세째 임신후 결혼신고, 결혼초 첫애 임신중 폭력(불법낙태)	쉼터	초혼, 이혼 소송
참여자 4	42	주부 (사무 회계)	고졸	1남2녀	남편: 대졸, 고교동창, 사업, 사업부도, 술문제, 임신후 결혼, 연예시절 집착함, 큰애 1세때부터 폭력	쉼터	초혼, 이혼 소송
참여자 5	52	파출부 (다방 마담)	고졸	1남	남편:초졸, 택시기사, 노름, 무능력, 오랜 동거 후 결혼, 동거 초기부터 폭력	쉼터	재혼, 이혼 소송
참여자 6	40	주부 (가게 점원)	고졸	2녀	남편:중졸, 공장사원, 반복실업, 불성실, 노름(술은 안함), 짧은 연애후 결혼, 임신중 폭언, 외도, 의치증	쉼터	초혼, 이혼 소송
참여자 7	48	주부 (백화점 팀장)	고졸	1남 (중증 장애)	남편:중졸, 백화점 식품배달업, 결혼후 사업했으나 부도, 불성실, 임신하여 동거함, 그후 결혼, 동거 2달부터 흥기폭행, 임신중 폭행으로 중증장애아 출산, 지속적인 심각한 폭력	영구 임대	초혼, 이혼
참여자 8	47	주부 (경리, 부업)	고졸	1남 (근육병)	남편:중졸, 중국집 주방장, 반복실직(불성실함, 3-4개월 일하고, 2-3개월 쉼), 독신주의였으나 30대중반 연예, 임신후 결혼, 결혼초부터 주사, 폭력	원룸 (월세)	초혼, 이혼
참여자 9	38	주부 (-)	고졸 (대학 중퇴)	3녀	남편:대중퇴(전산과), 컴퓨터수리업, 장애 4급(교통사고), 결혼전 사업, 부도, 교통사고당함, 병간호하면서 뒷바라지, 오랜기간 사실혼관계, 막내(세째)출산 후 결혼, 잦은 외도, 강박적성격, 폭력, 특히 언어적 폭력이 심함	영구 임대	초혼, 3년전 별거, 현재 이혼 소송

##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7년 2월부터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른 2007년 10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그들 자신의 개념과 경험을 언어로 이야기하게 하는 심층면접기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얻은 심층면접자료는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원으로 활용되었다. 면담횟수 및 시간은 한 연구참여자 당 평균 3-5시간 정도 진행하였고, 평균면담회수는 1-2회였다. 면담장소로는 참여자의 허락 하에 가정방문을 하거나 또는 컴퓨터의 상담실 등에서 진행하였다. 그리고 모든 심층면접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자의 허락 하에 녹음을 한 후 전사하였다.

## 3. 분석방법

현상학은 인간생활을 중심으로 한 ‘현상과 경험의 의미’를 찾으려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즉 무엇인가 경험한 사람들이 겪은 경험의 의미가 일상세계와 관련지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를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학문이다(이남인, 2004). 이때 현상과 경험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개인의 의식 속에 주어져 있는 사태 그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지향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현상학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개념화하는데 유용한 접근방법이라고 하겠다.

즉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반복질문을 통하여 연구 문제에 접근하면서 자료 및 분석에서 인식된 개념이나 기대 또는 틀을 사전 제시하지 않는 것이 현상학적 접근의 전제조건이며 직관이 지식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강진숙외, 2009).

본 연구는 가정폭력의 경험이 갖는 본질적 의미구조를 찾는 데 목적을 둔 바, 이와 같은 점에서 현상학적 접근을 분석방법으로 채택하였다.<sup>10)</sup>

10) 좀 더 부연하면 질적 연구의 스펙트럼을 주관성이 강한 연구와 객관성을 지향하는 연구의 양극으로 나누었을 때 현상학이 주관적 연구를 대변한다면 근거이론은 객관성을 지향하는 연구에 속한다. 즉 현상학적 접근은 어떤 현상에 대한 정리된 생각,

전술한 것처럼 가정폭력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이 실증적, 계량적 측면 혹은 사건의 종적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보다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문제의 본질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에 현상학적 접근에 기반하여 의미의 복합체인 인간의 행위 의도와 동기 등을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여 통합적으로 해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은 몇 가지 구체적인 주제 분석 과정을 거쳤다. 먼저 녹음된 테이프를 연구자가 여러 번 들으면서 필사된 내용과 얼마나 다른지를 찾아내면서 내용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면담내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다음은 2인의 연구자는 각자 필사된 내용을 파악하고 세 분법에 따라 문장 혹은 문장의 다발을 의미 구조 단위로 나누어보면서 그 부분의 의미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리고 각 의미에 대한 진술들을 공통된 주제별로 묶어 따로 정리하였으며, 도출된 주제들 간에 비교 분석하여 관련된 주제들과 구분되는 주제 등을 분리시켜서 현상에 대한 본질적 주제를 결정하고 이를 기술하였다.

#### 4. 연구의 엄격성을 위한 노력

현상학적 연구는 철학적 배경과 연구 방법에 있어서 일반 양적연구와 구별되며 또한 다른 질적 연구와도 구별된다. 특히 자료수집 과정이 자료 분석과정과 동시에 진행되는 근거이론의 방법과 달리 현상에 대한 포착, 참여대상자가 경험한 현상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Giorgi, 1985). 본 연구의 엄격성을 위해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사실적 가치(truth value)는 참여자의 경험의 진가를 가늠하는 척도로 얼마나 진실에 근접하였는가의 문제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오랜 현장

---

즉 본질을 확인하고 구성하는데 관심을 둔다면 근거이론은 개념을 통해 범주를 만들고 그것들 간의 관계를 엮어내면서 이론을 구성하는데 목적을 둔다(윤건수, 2008). 보다 구체적으로 현상학적 접근방법의 목표는 이론이나 모델을 개발하고 일반적인 설명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중인 현상의 경험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이다(김병희외, 2004:15).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역시 귀납적 이론형성이 목적이라기보다 의미의 총체적 이해 및 제시에 주안점을 둔만큼,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활용하게 된 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다.

에서의 상담경험으로 참여자들과 신뢰를 형성하는데 무리가 없었으며,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이야기를 해주었다. 면담은 상담실의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자연스럽게 개방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사된 자료를 반복해서 읽었으며, 분석 결과를 연구자 2인이 함께 충분히 논의하여 서로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거쳤고,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경험은 ‘괄호치기(bracketing)’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일관성을 얻기 위해 가정폭력 현장전문가 1인과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전공교수 2인에게 자문을 받는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자들의 선지식이나 경험에 의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적용성(applicability)은 연구 상황 이외에서 이 연구가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것으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자료를 심층적으로 수집하고 포화시킴으로써 충족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료가 충분히 포화될 때까지 진행하였으며, 이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하고 상담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에 적절할 것으로 기대한다.

## IV. 연구결과

### 1.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의 주제와 의미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주제와 의미는 아래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불평등한 부부권력관계: ‘감히 여자가’ 라는 이유의, 몰인격적 폭력, 가장에게 용인된 통제 도구로서의 폭력], [홀로 견뎌야하는 폭력: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미신과 폭력에 대한 무지 - 해결되지 않는 폭력문제를 참고 견뎌옴, 폭력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감내해야하는 피해자], [폭력의 악순환, 용서의 딜레마: 실제적 부부관계의 변화없이, 막연히 남편이 변할 것이라는 부질없는 기대, 나만 참으면 유지될 수 있는 가족관계, 양치기 소녀 - ‘가해자’와 ‘남편’이라는 양면성, 그 불가해(不可解)한

관계에 갇혀버림], [가정이라는 폐쇄적 영역: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국가조차 쉽게 개입할 수 없는 방치된 폭력의 사각지대, 무방비상태로 나날이 겪어야 하는 폭력의 공포와 불안], [‘나’를 잃어버린, 예측된 삶: 딸-아내-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내면화된 가부장적 정체성, 가장의 철저한 통제와 빼앗긴 주체성, 여성의 독립적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체계], [뿌리깊은 가부장적 폭력문화: 다른 사례 같은 이야기 - 폭력의 동일한 스토리 구조, 죄책감없는 남성 - 변하지 않는 남성중심성, 대물림하는 폭력 - 가해자도 과거 가정폭력의 희생자] 등 총 15개의 주제묶음과, 6개의 본질적 주제로 도출되었다.

〈표 2〉 사회적 배제 경험의 주제와 본질적 주제

본질적 주제	주제
불평등한 부부권력관계	① ‘감히 여자가’라는 이유의, 몰인격적 폭력 ② 가장에게 용인된 통제 도구로서의 폭력
홀로 견뎌야하는 폭력	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미신과 폭력에 대한 무지 - 해결되지 않는 폭력문제를 참고 견뎌움 ② 폭력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감내해야하는 피해자
용서의 딜레마, 폭력의 악순환	① 실제적 부부관계의 변화없이, 막연히 남편이 변할 것이라는 부질없는 기대 ② 나만 참으면 유지될 수 있는 가족관계 ③ 양치기 소녀 - ‘가해자’와 ‘남편’이라는 양면성, 그 불가해(不可解)한 관계에 갇혀버림
가정이라는 폐쇄적 영역	①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국가조차 쉽게 개입할 수 없는, 방치된 폭력의 사각지대 ② 무방비상태로 나날이 겪어야 하는 폭력의 공포와 불안
‘나’를 잃어버린, 예측된 삶	① 딸-아내-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내면화된 가부장적 정체성 ② 가장의 철저한 통제와 빼앗긴 주체성 ③ 여성의 독립적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체계
뿌리깊은 가부장적 폭력문화	① 다른 사례, 같은 이야기 - 폭력의 동일한 스토리 구조 ② 죄책감없는 남성 - 변하지 않는 남성중심성 ③ 대물림하는 폭력 - 가해자도 과거 가정폭력의 희생자

### 1) 불평등한 부부권력관계

참여자들은 모두 결혼 전에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대체로 평범한 삶을 살아왔으나, 결혼을 계기로 폭력에 노출되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연애결혼을 하였으며, 대부분 남편이 ‘자상하게, 잘해줘서’ 또는 ‘웬지 남자다워 보여서’ 사귀기 시작하였고, 때론 ‘친구나 오빠동생같이 편한 관계’에서 연인관계로 발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대부분 짧은 연애기간을 거쳐 임신이나 동거 또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임신이나 동거 등 실제적인 부부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태도가 확연히 변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참여자들의 남편들은 ‘여자는 남자를 따라야 한다’는 남존여비식의 비합리적인 복종을 참여자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결혼제도가 대부분 가부장적 문화의 산물이기때문에, 가족관계에서 ‘남편의 통제와 아내의 복종’이라는 성차별적인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어찌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실제로 남편들은 참여자들이 복종하지 않을 경우, ‘감히 여자가’라는 이유로, 상호인격적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물인격적 폭력을 행하였으며, 아내가 ‘남편의 말을 안 들으면’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듯 가부장적 구조에서 지배와 복종의 메커니즘을 가진 불평등한 부부권력관계로 인해 참여자들은 남편으로부터 심각한 폭력을 당해왔다. 즉 부부 간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바로 가정폭력문제를 야기하는 핵심적 동인이 되었던 것이다.

#### ① ‘감히 여자가’라는 이유의, 물인격적 폭력

참여자들은 남편으로부터, ‘감히 여자가’라는 이유로, 물인격적인 폭력을 당해왔으며, 남성은 특별한 도덕적 죄의식 없이 이러한 폭력을 저지르고 있었다. 사회는 위계적인 집단들이 보다 광범위한 도덕적 질서에 뿌리를 두고 상호권리와 의무에 의해서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사회적 배제는 이러한 도덕적 질서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한다(정미숙, 2007: 20). 따라서 가정 내 이러한 불평등한 부부권력관계로 야기된 물인격적 폭력은 결국 일반 사회의 도덕적 질서에서 벗어나, 여성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극단적인 사회적 배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말대로 안된다고 끌고 가더니 땅바닥에 내뺨대기를 치는 거예요. 고집피운다고(참여자 1)”

“자기 장난감처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난감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리개처럼, 생각나면 가지고 놀고, 그렇게(참여자 6)”

## ② 가장에게 용인된 통제의 도구로서의 폭력

결혼 후 발생하는 가정폭력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중 하나는, 부부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라 할 수 있다. 즉 전통적인 가부장사회에서 가족 내 위계질서의 상위에 있는 남성은 하위에 있는 여성에게 복종하기를 바라며, 복종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복종을 강요한다. 참여자들의 남편은 ‘가장인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해야한다’라고 당위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아내를 지배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폭력을 용인하고 있었다.

“여자들을 하인 다루듯이 다루고, 하인은 말 안 들으면 매로 다스려요. 무슨 짐승 부리듯이, 그런 인식이 자꾸, 없는 중에 보고 듣고 모든 실정이 남자우선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참여자 5)”

“나를 무슨 자기 시중드는 비서마냥 막 괴롭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차가지고 어디로 와!’ 가면은 ‘야, 와서 아는 형인데 너 술 따라봐라’, 나는 ‘여자는 남편 외에는 술 따르는 게 아니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난 술 따르는 건 좀 그러네? 그러면서 피했는데, ‘어디 여자가 말을 안 듣느냐고’라고 자기가 이제 남자고 난 여자니까 내 말을 들어라. 복종을 해라, 이런 식 인거죠(참여자 1)”

## 2) 홀로 견뎌야 하는 폭력

우리사회는 폭력에 대해 수용적일 뿐 아니라, 특히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통제와 훈육의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 특히 아내폭력문제에 대해서는 ‘복어와 여자는 사흘에 한번씩 패야한다’라든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식으로 아내폭력을 용인하는 인식이 뿌리내려왔다. 따라서 ‘부부싸움’을 하면서 발생하는 폭력은 공적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폭력문제가 아니라, 사적영역에서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할 문제로만 보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하는 가부장적 권력관계에서 ‘여자의 불순종’은 ‘맞을 짓’이므로, 오히려 피해자인 여성이 비난받아온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사회는 ‘폭력자체’를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당한 원인’을 고쳐야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김봉화와 김영미(2009)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18.7%가 ‘배우자로부터 맞는 사람은 맞을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5명중 1명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폭력의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피해자에게 잘못된 원인을 돌리는 폭력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과 폭력에 대한 무지로 인해 참여자들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거나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이중 삼중의 고통과 수치심을 느끼면서, 다차원적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었다.

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미신과 폭력에 대한 무지 - 해결되지 않는 폭력문제를 참고 견뎌움

참여자들은 남편으로부터의 폭력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배운 바가 없으므로 해결방안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단지 주위 사람들로 부터 폭력을 참고 견뎌야 한다고 종용 받아왔다. 참여자들은 시댁 식구들로부터, 폭력을 견디고 인내할 것을 강요받았으며, 때론 폭력을 유발했다고 비난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번 때려야 한다’ 또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라는 미신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맞은 것이다’라는 인식을 은연중에 하게 되었으며, 또한 ‘잘못했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폭력문제는 미해결로 둔 채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참고 견뎌왔다. 참여자들은 폭력에 대한 뿌리 깊은 성차별적인 미신과 무지로 인해 야기되는 폭력을 감내하면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엄마가 ‘그래 나도 맞고 살았다. 안 맞고 사는 사람 어딴냐 참아라. 같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지’. 그렇게 말하면 나도 또 내 자식한테 또.. 계속 형성이 되는 거야(참여자5)”

“그게 폭력인줄 몰랐어요(중략), 부부들은 다 싸우면서 사니까, 약한 사람이 맞고 사는 줄 알았어요(참여자 1)”

“이제 맞고, 아무 일도 아닌데도 나는 얻어 맞고, 그래도 그냥 넘어 갔어요. 내가 이해를 해버리고 그냥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고,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가지고, 그냥 참고 지나온 거예요(참여자 3)”

## ② 폭력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감내해야하는 피해자

우리나라는 남성의 폭력과 술에 너그러운 편으로, 종종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더 허용적이면서 오히려 피해자인 여성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 2003년에 있었던 유명연예인의 가정폭력사건의 예에서 보더라도, 많은 언론이나 네티즌들은 ‘폭력이라는 범죄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왜 폭력을 당하게 된 것일까?’라는 의문에 초점을 두고, 급기야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겠지’라는 식의 인습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폭력에 대한 이러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은 결국 폭력자체에 대한 문제해결을 돕기 보다는 폭력문제를 축소하고 수용하게 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중, 삼중의 피해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가정폭력 당해도 얘기를 못해요. 시선들이 곱지 않아요. 저 여자 어떻게 하고 살았길래(중략), 내가 잘못 안했는데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까지 생각을 하게 되고... 맞으니까 동네가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이유가?) 그러니까 오죽 못났으면 신랑한테 맞고 사냐. 우리나라 의식이 그렇잖아요. 맞았을 때는 모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 여자가 맞았다 생각을 하지. 저 아저씨 되게 못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가 맞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중략)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맞았을 것이다. 이런 편견이 있을 것 같아서 겁나더라고요(참여자 1)”

“고모가, 니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그렇지, 술 먹은 사람 비위도 못 맞춰서 그런다고(참여자 2)”

### 3) 용서의 딜레마, 폭력의 악순환

가정폭력은 나와 관계없는 ‘타인’의 폭력이 아닌, 나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남편’에 의한 폭력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힘들고 해결하기도 어려운 문제이다. 폭력에 대해 수용적이고 아내 폭력이 ‘부부간에 있을 수 있는 일’로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참여자들은 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한 채, 무력하고 혼란스런 상태에서 고통을 감내해 왔다. 참여자들이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폭력을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었으며, 폭력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가족해체였다. 폭력을 홀로 참고 견디든지 또는 이혼하든지 극단적 양자택일만이 그들의 유일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우리사회에 만연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이혼이라는 선택은 또 다른 공포와 두려움을 야기한다. 특히 혼자가 아니라 자녀를 데리고 이혼을 할 경우, 양육과 생계의 이중부담과 더불어 ‘이혼가정, 아버없는 자식’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감내해야 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심각한 폭력을 당하면서도 이혼을 결정하기까지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이혼하기 전 참여자들은 여러 차례 폭력으로부터 도망나왔다 가도, 다시 폭력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반복하였다. 어떤 경우엔 이혼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경우도 있지만, 참여자는 지속적인 폭력문제로 인해 무력감과 혼란감에 빠져 단호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가족관계는 혈연관계로 이어져있기 때문에 쉽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이다. 가족관계에서 ‘가해자’와 ‘남편’이라는 이중적이고 양면적인 불가해한 관계에서, 그리고 여성을 남성에게 의존해야할 존재로 여기는 남성부양자 이데올로기에서, 참여자들은 불나방이 불을 보고 뛰어들듯 다시 폭력을 당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다. 그것은 한편으로 가해자인 남편이 용서를 빌 때 이번 한번만 더 믿어보자는 부질없는 기대를 가지고, 때론 나만 참으면 가족관계가 유지된다는 마음으로, 혹은 자녀에 대한 모성이나 기댈 곳 없고 갈 곳 없는 사회에서 살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되풀이되는 반복이었다. 즉 그들은 한가지의 단선적 이유가

아니라 매우 복잡적이고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대안없는 불가해(不可解)한 상태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경험하면서 공격영역, 사적영역 모두에서 차별과 배제를 당해왔다.

① 실제적 부부관계의 변화 없이, 막연히 남편이 변할 것이라는 부질없는 기대 참여자들은 폭력문제를 그대로 남겨둔 채, ‘용서를 비니까 이번엔 믿어보자’, ‘참고 살다보면 점점 나아지겠지’ 라는 식으로,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나 해결과정 없이, ‘막연히’ 남편이 스스로 변할 것이라는 부질없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막연하고 부질없는 기대로 폭력을 견뎌왔다. 가정폭력문제는 매우 복잡적이고 다차원적 요인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폭력에 대한 무지와 미신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가정폭력문제는 여자가 참고 견디거나 숨겨야하는 창피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모든 폭력문제를 홀로 감내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참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거의 없었다. 결국 참여자들은 폭력자체는 미해결인 채로 두고, 막연히 남편이 스스로 변하기를 기대하면서 반복되는 폭력을 참고 견뎌온 것이다.

“진짜 앞으로는 자기가 때린 게 얼마나 잘못된 게 처음 알았다고 하면서 진짜 행복이 뭔지, 가정이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고(중략), 진짜 최선을 다 해서 남은 인생동안 잘하겠다고 너무너무 절실하게 얘기했어요. 진짜로 믿었거든요(중략), 집에 들어오기로 했을 때, 자기가 술도 끊고, 다시는 욱도, 술도 안 하기로 하고 들어왔는데(참여자 4)”

“애하나 놓을 때부터 때렸으면, 그럼 둘째 놓으면 괜찮아지겠지, 아들 없으면 아들 놓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래서 여자는 일평생 속으면서 사는 거야. 남한테 속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내가 속이면서 사는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내 스스로 내가 속이는 거야. 내 스스로 위안해가면서, 더한 사람도 있겠지 이러면서, 자꾸 이러면서 내 스스로 나를 속이면서 살았더라고, 이제까지.(참여자 5)”

## ② 나만 참으면 유지될 수 있는 가족관계

참여자들은 남편의 폭력이 단지 부부싸움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적이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여기며 ‘나 하나 참으면 가정은 유지되는데’라는 생각으로 폭력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다. 사적영역에서의 폭력은 개인적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참여자들은 폭력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단지 폭력에 대한 인내만을 강요당하면서 살아온 것이다. 참여자들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가정이라는 벽에 갇혀, 사회적 보호와 참여뿐 아니라,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기회조차도 박탈당해왔다.

“형님이 와서(중략)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맞고 살았는데, 자기가 다 참고 산데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애들이 크니까 안하더라 이거예요. 참으면 된대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어른들이 여자가 대들고 악악대면 남편이 그러니까 여자가 참아라, 참아라 그러잖아요. 아, 참으면 되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참여자 1)”

“나오기 전에 시댁에도 상담을 했어요. 고모한테 얘기하니까, 고모가 나하나 참으면 되는데 왜 이런데 나와서 그러냐는 거예요(중략), 너만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딴사람도 다 그렇게 힘들게 산다 그러고(참여자 2)”

## ③ 양치기소녀 - ‘가해자’와 ‘남편’이라는 양면성, 그 불가해(不可解)한 관계에 갇혀버림

‘폭력의 가해자’이자 ‘내 남편’이라는 이중적이고 양면적인 관계 속에서 참여자들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전혀 모른 채, 자기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고, 타인으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하는 혼란스럽고 고통스런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양면적이고 이중적인 관계는 참여자로 하여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이중구속(double bind)<sup>11)</sup>과 비슷한 상태에

11) 이중구속(double bind) : 미국에서 활동한 영국 태생의 문화인류학자 그레고리 베이트슨(Gregory Bateson)이 정신분열증에 관해서 1950년대에 제시한 이론으로, 몸을 꼼짝도 할 수 없는 정신상태를 말한다. 예컨대 어머니가 아이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도록 말하고, 동시에 그것을 부정하는 듯한 몸짓을 한다. 그러면 아이는 이중으로

빠지게 만든다. 그리고 그 불가해한 관계에서, 남편의 폭력에 맞서 싸울 힘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 참여자는 결국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지도 못하고 맞서 싸우지도 못한 채, 폭력문제에 머무르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도망갔다가도 고무줄 끈처럼 그 관계의 끈에 매여 다시 가정으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참여자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주었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양치기 소녀’가 되어버렸다.

“마지막으로 한 번 노력해 보고 안 되면 그때는 이혼은 그때 해도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하고(중략), 제가 그만 살고 이혼을 하면 괜찮은데 또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그거로 인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친정식구들이 뭐라 했다 그러면서 너네 식구들이 어쨌네, 저쨌네. 너무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이제는 식구들도 뭐라고 하지를 않고, (중략) 이제 주위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개입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친정식구들도 제가 자꾸 그러고는 또 살고, 또 살고 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양치기 소녀’가 되가지고 이제는 별로...(참여자 4)”

#### 4) 가정이라는 폐쇄적 성역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여성은 가장인 남성에게 종속되어 지배되고 착취되는 대상이 된다. 그리고 부부싸움은 극히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로부터 적극적이고 신뢰할만한 제도적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일반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죄로 처벌되지만 사적영역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고, 종종 폭력원인이 최소한 부부 모두에게 있다는 식의 왜곡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이중피해를 받아왔다. 가정폭력은 ‘성별화된 폭력(gender-based violence)’으로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적영역의 문제로 치부되어, 참여자들은 사회적 기본권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

구속된 상태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을 이중구속의 상태라고 한다(두산백과사전).

①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국가조차 쉽게 개입할 수 없는, 방치된 폭력의 사각지대

참여자들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사회적·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여전히 부부싸움으로 인식되어, 공적인 개입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참여자의 생명과 안전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남자가 ‘욕하면 때릴 수도 있지’라는 식으로 남성의 폭력은 허용되고 있었으며, 오히려 참여자에게 ‘맞을 짓을 했으니까’라는 식으로 폭력의 책임이 전가되고 있었다. 한편 폭력문제로 경찰을 불렀을 때, 참여자들은 경찰로부터 안전한 격리나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였으며,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문제다’, ‘이혼이나 고소하지 않을 거면 부부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즉 공적개입은 결국 사적영역에서의 부부간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보호가 아니라, 부부관계를 끝내는 지점인 이혼이나 고소상황까지 가야 개입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가부장사회에서 여성은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에 매이게 되고,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에 대한 이중적 잣대와 접근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이중, 삼중의 복합적이고 중첩적인 배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남을 때리면 돈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남을 때리면 돈을 물어줘야 되니까 안 때리고 마누라는 돈 안 물어주니까 때리냐고.. 나는 왜 때리냐고 그럼 맞을 짓을 하니까 때린데요. 그러면 나는 또 너는 맞을 짓 안하냐고, 옆집사람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해놓고 부부간에는 싸워도 괜찮다 이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남들하고 싸우면 합의를 보라, 감방가네 이러면서 부부간에 싸울 때는 알아서 해라, 이런다고.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게 잘못인거야. 그럼 막말로 남남끼리 싸우면 힘없는 놈은 맞고 힘 있는 놈은 두드려 패라. 그런 건가, 그건 아니잖아, 부부간에 싸울 때 진짜 집어넣어야되(참여자 5)”

“당장 무섭고 그래서 경찰서 온건 데 멍든 거 보이는데,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던가, 고소할건지 그런 거 정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혼할 생각 없으면 고소하지 말고 남편하고 알아서 합의하라고, 그리고 집에 가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참여자 2)”

② 무방비상태로 나날이 겪어야 하는 폭력의 공포와 불안

참여자들은 남편의 잔인한 폭력으로부터 극단적인 죽음의 공포와 불안을 느꼈다. 참여자들은 남편과 함께 있는 때는 언제 폭력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되고 아슬아슬한 분위기에서 항상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왔으며, ‘남편이 있는’ ‘집’을 가장 두렵고 무서운 곳으로 느끼고 있었다. 한편 장기간동안 지속적이고 심각한 폭력을 당하면서, 골절로 인한 디스크, 신경마비 등 여러 후유증을 앓고 있었으며, 또한 스트레스성 원형탈모증, 노이로제, 불안과 우울, 분노와 좌절감 등 복합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칼로 죽인다고 텅비고, 너 같은 것은 죽어야 된다고 하고, 흥기 찾으러 돌아다니고, 머리를 잡혔으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칼을 꺼내는 거예요. 찢러 죽이겠다고, 겁나가지고, 제가 손을 막 쥐어뜯고, 밀치고 도망 나온 적이 있어요(중략), 저 XX년 배 따 죽어야 된다고, 저년 가만 안둔다고(참여자 1)”

“사람이 사람을 왜 죽이는지 알 것 같았다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병원가자고, 그래도 동네 창피하게 자기가 정신병자냐고 그러고(참여자 2)”

“발자국 소리 들리면 심장이 쿵쿵쿵 뛰고 어 왔어 하고 조용히 넘어가면 들어와서 그냥자면 다행인거고(참여자 8)”

“우리들끼리만 있으면 막 웃다가도, 아빠가 들어와서 소리 한 번만 지르면 전부 다 살얼음판 되가지고 각자 방으로 다 들어가요.(참여자 3)”

5) ‘나’를 잃어버린, 예속된 삶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여성이 평등하고 독립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에게 예속된 의존적인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 딸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가족의 일부로서의 정체감을 가지고, 가족을 ‘뒷바라지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즉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들은 ‘나’라는 개인으로

서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조 내부에 녹아있는 ‘가족의 일부’로서의 존재로 살아가도록 길들여지는 것이다. 더욱이 남성부양자모델을 따르는 사회구조에서 여성은 자신의 생계와 생존을 스스로 책임지는 독립된 존재라기보다는, 남성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면에서나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모두 독립적인 생존을 하는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결혼 후 가장인 남편에게 경제·사회적으로 통제당하고 착취당하는 경험을 하였다. 참여자들의 남편은 가장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실제 가장의 의무인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하든지 하지 못하든지 간에 참여자들을 지배하고 착취하였으며, 참여자들은 그러한 가장의 권력아래서 철저히 예속되어 주체성을 박탈당한 채, 사회구조적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 ① 딸-아내-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내면화된 가부장적 정체성

가정 내 권력의 성별화된 위계와 가부장적 성별분업은 여성을 사회·경제적으로 배제하는 기제로 작동하게 하고, 가장인 남편아래 종속되어 개인이 아닌 아내로서, 피부양자로서의 역할에만 매이게 한다. 그러면서 참여자들은 가장의 폭력으로 통제되고 억압되어, 자아를 잃고 주체적 삶으로부터 배제당하는 경험을 하였다.

“친정생각, 이런저런 생각. 자식생각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야. 여자는 내가 없고 누구엄마 혹은 누구 마누라만 있는 거야. 누구 집 딸.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나도 내 존재성은 없고, 누구 동생 누구 집 딸 누구 집 엄마 어쩔다더라. 지금은 내가 생각을 한 게 내가 있어야 올 엄마도 있고 내동생도 있더라 이거야...나도 나같이 살아보고 싶고 (참여자 5)”

#### ② 가장의 철저한 통제와 빼앗긴 주체성

참여자들은 남편이 생계부양을 하는 경우 가정경제권을 넘겨받지 못한 채, 남편이 용돈 주듯이 주는 생활비를 받으면서 경제적인 통제를 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참여자의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없고 참여자들이 실제적인 생계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참여자들은 남편에 의

해 경제·사회적인 통제와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 즉 참여자는 가족을 실제 부양하던 부양하지 않던, 남편의 지배하에 있는 의존적 존재로서,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었으며, 참여자 남편의 경우 생계를 책임지든 지지 않든지간에,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배할 권한을 소유하고 있었다.

“돈을 다 어디다 썼냐고. 그거로 싸우고 나면 애기 아빠는 어쩌냐하면 통장, 카드, 도장 다 챙겨요. 카드도 다 내놓으라고 해요. 너 못 믿겠으니까 너한테 살림을 못 맡기니까(참여자 1)”

“작은 애가 아토피가 있어요. 그래서 제 판에는 자연식으로 이유식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믹서기를 샀어요. 근데 갑자기 믹서기를 샀다고, 정신나간 여자라구 갖다 던지니 뭐니 포약을 떨어라구요...그것 조금 주면서, 제가 등골을 빼먹는데요(참내), 근데 어떻게 그러구 살았어요. 그런데 길들여지더 라고요. 살면서 그러면 그런가 부다 이러면 이런가 부다, 그렇다구 제가 또 갈데도 없구, 그러니까 거기 사는데 생활에 길들여지는 것 같아요(참여자 6)”

“친구 만나러 가본 적도 없고, 결혼하고 10년 넘도록 계속 그렇게 살고 살았던 것 같아요.(중략), 이렇게 살다간 (아프고 힘들 때) 나를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겠더라고요. 진짜로(중략), 친구가 6개월 만에 이사했는데 그것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친구들 전화도 신랑 앞에서는 마음대로 받지도 못하고. 다 싫어하니까요. 다 싫어하는데, 친정식구들도 싫어하니까 전화도 몰래 받고, 못 받고, 감추고 항상 이려고 다녀야 되고. (참여자 4)”

### ③ 여성의 독립적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체계

참여자들 결혼 전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생애전반에 걸쳐 사회인으로, 직업인으로, 또는 독립된 개인으로, ‘나’라는 주체적 존재로서의 정체감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관습적인 성역할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면서, 결혼하면 ‘아내로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성별분업이데올로기와 남성부양자모델에 입각한 정체성은 결국 노동시장에서의 취약한 지위를 가지게 하며, 남편이 없을 때 여성의 독립

적 생존을 크게 위협한다. 참여자들은 결혼 전 직업은 대개 비정규 임시직이나 일용직이었는데, 결혼 후 자연스레 그만두었다. 그런데 이러한 취약한 경력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지위를 가지게 되며, 남편의 무능이나 이혼으로 스스로 생계책임자가 되어야 할 때, 대부분 저임금의 열악한 비정규 일용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여자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이란 대부분 저임금의 일용직인데, 그 직종은 다키는 대로 일하면 자기 혼자서 근근이 살 수 있겠지만, 자녀와 함께 있는 경우, 양육과 생계를 모두 책임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폭력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해결을 저해하고, 참여자의 선택과 기회의 폭을 좁힌다.

“내가 당장 나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당장 집 나가면 고생이잖아. 돈 없으면 먹을 것도 없고... 여자가 나가면 쉬운 게 친정밖에 더 가겠어요. 근데 친정한테 피해도 주기 싫고, 나 하나에서 끝나는 거라고 참는 거라고.(참여자 5)”

“내가 겪지 않았을 때는 몰랐는데, 왜 그리고 사나 싶었는데, 내가 딱 겪으니깐 왜 참고 사는지도 알겠고(중략), 당장 갈 데도 없고 잘 데도 없고 그러니까 참고 들어가고(참여자 2)”

## 6) 뿌리깊은 가부장적 폭력문화

가정폭력은 가부장적 문화에 뿌리를 둔 남성중심사회의 성차별적 문제로, 가부장 문화에 뿌리를 둔 폭력은 폭력의 대물림의 기제가 되고, 죄책감을 갖지 않고 남성을 가해자로 남게 하는 원인이 되며, 피해여성을 오히려 비난하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한다. 참여자들의 가정폭력경험은 각각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한 사람의 경험이라고 혼동이 될 만큼, 거의 동일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른 사례, 같은 경험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폭력의 뿌리가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며, 태생적으로 ‘성별화된 폭력(gender-based violence)’을 내재하고 있는 가부장적 폭력문화는 참여자들의 중첩적이고 다차원적인 차별과 배제를 야기하는 구조적이고 핵심적인 동인이 된다.

① 다른 사례, 같은 이야기 - 폭력의 동일한 스토리 구조

참여자들은 쉼터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큰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가정폭력의 문제가 어떤 한 사람의 특정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는 동일한 이야기구조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자들끼리 폭력문제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할 때 서로 이름만 다른 동일한 한 사람의 남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가정폭력이 가부장적 문화에 뿌리를 둔 구조적 폭력문제라는 사실의 반증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구조는 남자가장이 나가서 돈벌어오고 여자는 집에서 애 키우면서 살림하는 그런 구조잖아요....우리 사회문제로 우리나라 남자들은 아직까지도 전근대적인 게 있어요. 남자우월사상이 아직까지 박혀있거든요(중략), 이거는 우리 신랑 문제가 아니고 내문제도 아니고(참여자 5)”

“여기(쉼터) 와서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남자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한 사람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증상이 다 똑같은 거 예요. 정신병같아요. 질환 같아요. 그게 다 똑같으니까 십년을 살던 일년을 살던 다 증상이 똑같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백 명 중 한 두명 정신차린 사람이 있을까? 고쳐지지 않는 거잖아요.(참여자 2)”

② 죄책감 없는 남성 - 변하지 않는 남성중심성

일반 사회에서 폭력의 가해자가 폭력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것은 사이코패스<sup>12)</sup>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코패스가 아니더라도 죄책감을 갖지 않고 저지르는 폭력이 바로 가장에 의한 여성폭력이다. 가부장적

12) 사이코패스(psychopath, 폭력성을 동반하는 이상 심리 소유자) : 이들은 감정을 지배하는 전두엽 기능이 일반인의 15%밖에 되지 않아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고통에 무감각하므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로 받게 될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재범률도 높고 연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일반 범죄자들보다 높다. 또 공격적 성향을 억제하는 분비물인 세로토닌이 부족하여 사소한 일에도 강한 공격적 성향을 드러낸다고 한다. 사이코패스는 이같은 유전적·생물학적으로 요인에 사회환경적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전인격적 병리현상으로 본다(두산백과사전).

사회구조에서 가장의 폭력은 위계질서 상 아래에 있는 여성에 대한 통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위한 기제이므로 죄의식을 갖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뿌리 깊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가해자로서의 죄의식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는 남성이 스스로 변화되기는 매우 요원한 일이다.

“애 아빠는, 내가 맞을 짓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는 생각 안하고, 고칠 생각도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자기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고칠 생각을 안 해요. 여자랑 애는 3일에 한번 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애들도 어른 때리듯이 때리니까 애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참여자 2)”

“아들만 중시하고 여자는 이래버리니까, 그렇게 교육받고 큰 남자들이(중략), 여자는 지보다 한참 아래로 보는 거야. 지도 모르게 은연중에 세뇌가 되가지고 그게 잘못인지 모른다는 거죠. (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모르는 거야. 당한 사람만 알고, 그래(때려)놓고는, 나중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고(참여자 5)”

### ③ 대물림하는 폭력 - 가해자도 과거 가정폭력의 희생자

참여자의 남편은 대부분 과거 자신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으며, 가부장적 폭력문화 속에서 피해자였던 남자는 가장이 되면서 아내를 때리는 가해자가 되었다. 이러한 폭력의 대물림은 우리사회에서 가부장적 폭력문화가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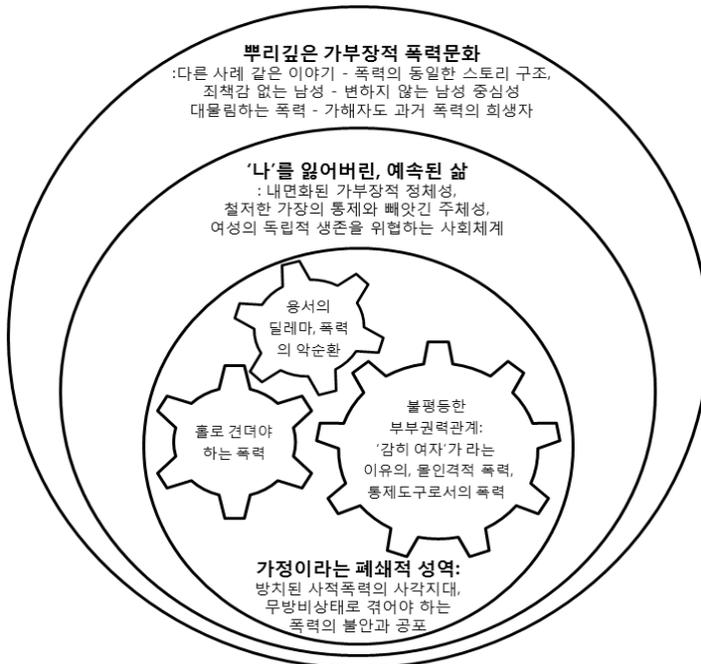
“부모님의 의치증, 술 때문에 그런 거 보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게 있다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진지하게 치료받아보자고 그랬는데 자기를 정신병자 취급한다고.(참여자 2)”

“얘기 들어 보면, 어렸을 때도 동생들을 무진장 많이 때렸었고, 본인도 자라오면서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랐어요.(참여자 3)”

## 2.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의 일반적 구조

본 연구에 참여한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진술을 통합하여 도출한 보편적인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의 일반적 구조



가부장적 사회구조는 주지하다시피 가정폭력문제를 야기하는 핵심적 동인이 되고 있다.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는 자연스럽게 성차별적인 불평등한 부부권력관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가족 내 위계질서의 상위에 있는 남성은 하위에 있는 여성에게 복종하기를 바라며, 복종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복종을 강요한다.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하는 가부장적 권력관계에서 '여자의 불순종'은 '맞을 짓'이므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인 여성을 비난하게 되며 남성은 죄책감을 가지지 않게 된다. 즉 가부장 사회에서 가장인 남성은 여성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소유하며, 지배의 도구로서 폭력이 용인되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면죄부를

가지게 된다. 폭력문제에 대한 사회의 이중적 잣대로 인해 가정은 남성에게는 치외법권(治外法權)지역이요, 여성에게는 인권과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폭력의 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무지와 무대책 그리고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이중 삼중의 차별과 배제를 당한다.

이렇듯 가정폭력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또한 가족이라는 혈연공동체이자 1차 집단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매우 미묘하고 복합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나와 관계없는 ‘타인’의 폭력이 아닌, 나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남편’에 의한 폭력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남편’이라는 이중적이고 양면적인 불가해(不可解)한 관계에서, 여성은 폭력으로부터 도망가지도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지도 못한 채, 폭력의 악순환에 매이게 된다. 사실 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나 해결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은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참고 견디느냐 아니면 이혼을 하느냐 라는 양자택일의 극단적 선택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이혼이라는 선택은 또 다른 불안과 두려움을 야기한다.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들은 ‘나’라는 개인으로서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조 안에 녹아있는 ‘가족의 일부’로서의 존재로 살아가도록 길들여지는 것이다. 더욱이 남성부양자모델을 따르는 사회구조에서 여성은 자신의 생계와 생존을 스스로 책임지는 독립된 존재라기보다는, 남성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회구조적으로 독립적인 생존을 하는데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여성은 공적영역, 사적영역 모두에서 차별과 배제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 경험은 각각의 사례가 아니라, 한 사람의 경험이라고 혼동될 만큼, 거의 동일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다른 사례, 같은 경험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폭력의 뿌리가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며, 태생적으로 ‘성별화된 폭력(gender-based violence)’을 내재하고 있는 가부장적 폭력문화는 참여자들의 중첩적이고 다차원적인 차별과 배제를 야기하는 구조적이고 핵심적인 동인이 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본질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9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결과분석을 위해 지오르기(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적용되었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의 사회적 배제 경험의 주제 15개, 본질적 주제 6개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주제와 본질적 주제는 1) 불평등한 부부권력관계: ▶‘감히 여자가’ 라는 이유의, 몰인격적 폭력, ▶가장에게 용인된 통제 도구로서의 폭력, 2) 홀로 견뎌야하는 폭력: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미신과 폭력에 대한 무지-해결되지 않는 폭력문제를 참고 견뎌움, ▶폭력에 대한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감내해야하는 피해자, 3) 폭력의 악순환, 용서의 딜레마: ▶실제적 부부관계의 변화 없이 막연히 남편이 변할 것이라는 부질없는 기대, ▶나만 참으면 유지될 수 있는 가족관계 ▶양치기 소녀-‘가해자’와 ‘남편’이라는 양면성, 그 불가해(不可解)한 관계에 갇혀버림, 4) 가정이라는 폐쇄적 영역: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국가조차 쉽게 개입할 수 없는 방치된 폭력의 사각지대, ▶무방비상태로 나날이 겪어야 하는 폭력의 공포와 불안, 5) ‘나’를 잃어버린, 예측된 삶: ▶딸-아내-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내면화된 가부장적 정체성, ▶가장의 철저한 통제와 빼앗긴 주체성, 여성의 독립적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체계, 6) 뿌리깊은 가부장적 폭력문화: ▶다른 사례 같은 이야기-폭력의 동일한 스토리 구조, ▶죄책감 없는 남성 - 변하지 않는 남성중심성, ▶대물림하는 폭력-가해자도 과거 가정폭력의 희생자 등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본질적 주제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사회적 배제 경험의 일반적 구조는 위의 [그림 1]과 같다.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뿌리를 둔 불평등한 부부권력관계는 폭력을 야기하는 핵심 동인이 된다. 남성은 자신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통제의 도구로 폭력을 행사하며,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종속물로서 자신의 뜻과 기분에 맞지 않으면 ‘감히 여자’라는 이유로 몰인격적인 폭력을 자행하게 되며, 이러한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여성의 인권과 존엄성을 파괴하는 폭력의

장이 된다. 그리고 가부장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부부간의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무대책과 무방비로 방치되어 여성을 홀로 폭력을 견딜 수 밖에 없다. 이렇듯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뿌리를 둔 가정폭력은, 또한 가족이라는 혈연공동체이자 1차 집단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미묘하고 복합적인 측면을 내포한다. 가정폭력은 나와 관계없는 ‘타인’의 폭력이 아닌, 나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남편’에 의한 폭력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남편’이라는 이중적이고 양면적인 불가해(不可解)한 관계에서, 여성은 폭력으로부터 도망가지도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지도 못한 채, 폭력의 악순환에 매이게 되는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인 보호와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혼이다. 그러나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들은 독립된 개인보다는 아내·어머니로,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가족해체를 전제로 하는 이혼을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 게다가 남성부양자모델을 따르는 사회구조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성의 독립적 생존은 사회제도적으로 불리하며 때론 위협적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여성은 공적영역, 사적영역 모두에서 차별과 배제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경험은 거의 동일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듯 다른 사례, 같은 경험처럼 보이는 이유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며, ‘성별화된 폭력(gender-based violence)’을 내재하고 있는 가부장적 폭력문화로 인해 피해여성은 중첩적이고 다차원적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문제는 ‘폭력’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게 폭력인줄 몰랐어요. 반쯤 죽어가야지 폭력이지, 그게 심각한 폭력인줄 몰랐어요(참여자 1)”

사실 우리사회는 폭력을 수용하고 용인하는 문화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정폭력발생률은 50.5%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여성

가족부, 2008),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여전히 ‘사랑의 매’라는 명분으로 폭력을 자녀나 학생의 훈육수단으로 용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사회에서 폭력문제를 접근할 때 ‘폭력’ 그 자체보다는, 폭력의 ‘정도’와 ‘이유’ 등으로 에둘러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폭력은 경중을 떠나 그 속성이 동일하므로,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폭력’이 상황에 따라 또는 경중에 따라 인정되고 수용되는 문화에서 폭력자체가 뿌리 뽑히기는 힘들다고 보며,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폭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폭력에 대한 무지와 왜곡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제도적, 실천적 노력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가들은 피해여성의 딜레마를 이해하고, 보다 다양한 개입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만 살고 이혼을 하면 괜찮은데 또 같이 살잖아요. 친정식구들도 제가 자꾸 그러고는 또 살고, 또 살고 하니깐, 제가 무슨 말도 해도 ‘양치기 소녀’가 되가지고(참여자 4)”

가정폭력은 모르는 낯선 타인이 가해자가 아니라, 정을 나누는 남편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 이중적이고 불가해(不可解)한 관계에서, 피해여성은 대안도 대책도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스런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피해여성의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피해여성에게는 이혼하는 것도 폭력을 참고 견디는 것도 모두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폭력으로부터 도망 나왔어도 불을 보고 뛰어드는 불나방같이, 폭력이 미해결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양치기 소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는 가부장적 사회구조로부터 야기된 딜레마이지만, 이 딜레마에 갇힌 것은 피해여성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피해여성의 의지부족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 놓여있는 피해여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피해여성이 임파워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폭력을 인내하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남성은 폭력문제에 대한 변화나 해결의지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때 관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여성이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이는 가정해체냐, 가정유지냐의 사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던지 폭력의 고리를 끊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폭력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대응전략과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여 여성이 실제로 임파워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 폭력문제는 개인적인 접근뿐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구조는 남자가장이 나가서 돈벌어오고 여자는 집에서 애 키우면서 살림하는 그런 구조잖아요..우리나라 남자들은 아직까지도 전근대적인 게 있어요. 남자우월사상이 아직까지 박혀있거든요(참여자 5)”, “여기(쉼터) 와서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남자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한 사람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2)”

가정폭력문제는 모든 사례에서 한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이야기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뿌리 깊은 가부장적 폭력문화에 기인한 사회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폭력문제는 개인에 대한 개입뿐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은 ‘성별화된 폭력(gender-based violence)’으로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왜곡된 남녀 권력관계에서 발생되므로 폭력피해여성의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가부장적 사회문화의 뿌리를 제거하고, 보다 평등하고 통합된 사회를 지향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가정폭력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성인지적 정책 및 전략과 사회통합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신욱 외(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서울: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강진숙·장지훈·최종민(2009). 2008 촛불집회 참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3-4호, pp. 7-48.
- 김명숙(2008). 사회적 지지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쉼터 입소여성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김봉화·김영미(2009). 가정폭력방지 정책의 현황과 효과성 측정을 위한 시론적 접근 - 광명시 가정폭력현황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pp.3-33
- 김병희·안경주·최명애 (2004). 대학생의 비만경험과 비만예방 광고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한국광고홍보학회, 제6권 제1호, pp.7-38.
- 김선아, 김소야자, 남경아, 박정화, 이현화(2003). 가정폭력으로 쉼터에 입소한 여성의 피해실태와 정신건강, 대한간호학회지, 제33권제7호, pp.981-989.
- 김승권(1999). 한국 가정폭력의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4월호, pp.62-73.
- 김안나(2007). 한국의 사회적 배제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이론, 제32호, pp.227-254.
- 김영화·김구·김지아·장경은·정금화(2007). 한국사회복지론, 경기: 양서원.
- 김재엽(1999). 한국가정폭력의 실태와 행위자 교정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연세대사회복지연구소.
- 노혜진·김교성(2008).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가구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중단연구, 사회복지장연구, 제24권 제4호, pp.167-196.
- 류은주(2009).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생애사 연구 : 자립과 자립이후의 사회적응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26권, pp.5-34.

- 문진영(2004). 사회적 배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프랑스, 영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3호, pp.253-277.
- 박영란(2007).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 피해자의 욕구와 피해자 보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여성학 제23권 3호, pp.189-214.
- 박희숙(2002). 여성폭력 쉼터 이용자들의 경제적 자립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변화순·박영란·김재엽·황정임(2001). 한국의 가정폭력 관련법 제정 이후 가정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손운정(2004). 가정폭력 방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아내학대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경림(2005). 질적연구방법론,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명호(2004). 한국사회의 새로운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 도시와 빈곤, 제67호, pp.160-170.
- 신민섭, 오경자, 홍강의, 김해숙(2004). 아내폭력이 배우자 및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제23권제3호, pp.611-636.
- 신성자(2001). 부부의 자녀폭력 및 부부폭력과 자녀 양육수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호, pp.139-174.
- 양현아(2006). 가정폭력에 대한 비판적 성찰:젠더폭력개념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0(1), pp. 1-45.
- 여성가족부(2008). 2007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 유현숙·곽현근(2007). 여성 한부모 가족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연구임대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34호, pp.245-272.
- 윤견수(2008). 질적 연구의 다양성과 공공조직 연구의 확장, 한국조직학회보 제5권 제3호, pp.163~198.
- 이남인(2004).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동명(2000). 가정폭력의 본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1권, pp.233-251.
- 이상규(2001). 가정폭력피해여성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태진 외(2007).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점검 평가-기초보장  
수급자 및 담당자 심층면담 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정자(2007). 쉼터 거주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가정복귀 및 자립의  
요인-경남·부산·대구지역 11개 쉼터를 대상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석한(2001). 여성쉼터 이용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직업교육 방안. 동국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미숙(2007). 저소득 여성 가구주의 가족경험과 빈곤화 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적 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Amirthalingam, Kumaralingam(2005), "Women's rights,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violence: Asian perspectives", *Human  
Rights Quarterly*, 27, pp. 683-708.
- Atkinson, T. (2002). Reassessing the fundamentals: Social inclusion  
and the European Union.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0th Anniversary Conference, Fiesole, April 2002.
- Barnes, M., Heady, C., Middleton, S., Millar, J., Papadopoulos, F.,  
Room, G., & Tsakloglou, P. (2001).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Europe*. Northampton, MA:Edward Elgar.
- Burchardt, T., J. Le Grand, & D. Piachaud(1999). Social Exclusion in  
Britain 1991-1995,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3(3),  
pp.227-244.
- Carter, C. (2000). New deals, no wheels: Social exclusion, teleoptions  
and electronics, ontology. *Urban Studies*, 37(10), 1735-1749.
- de Haan, A. and Maxwell, S. (1998) Editorial: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in North and South, *IDS Bulletin*, Vol.29, No.1,  
pp.20-31.
- Denzin, Norman K. Toward a Phenomenology of Domestic, Family  
Violence,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0, No. 3,  
pp. 483-513.

- Dutton, M. A.(1992). Empowering and Healing the Battered Women.  
New York: Springer.
- EC Commission(1998), Non Monetary Indicators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 EC Commission, Social Protection Committee(2001), Report on  
Indicators in the Field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 Geertz, C.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New York: Basic  
Books.
-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 Gleason, W.(1993). "Mental Disorders in Battered Women : An  
Empirical Study". Violence Vict 8. 53-68.
- Hills, J., J. et al.(2002).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Oxford Univ.  
Press
- Jackson, Cecile(1999). Social exclusion and gender: Does one size fit  
all?, Th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11: 1,  
pp.125-146.
- Jordan, B.(1997). A Theory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Cambridge : Polity Press.
- Looseley, David (2004). The development of a social exclusion agenda  
in French cultural policy, Cultural Trends, 13:2, pp.15-27.
- Mayes, D. (2001). Introduction. In D. Mayes (Ed.), Social exclusion  
and European policy. Cheltenham, UK: Edward Elgar.
- McDevitt, Suzanne(2004) 'Social Exclusion in the European Union',  
The Social Policy Journal, 2: 4, pp.3-18.
- Rodriguez, E., Lasch, K. E., Chandra, P., Lee, J..(2001). Family  
Violence, Employment Status, Welfare Benefits, and Alcohol  
Drinking in the United States: What Is the Relation?,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Vol.55 no.3,  
pp.172-178.

- Silver, H.(1995). Reconceptualizing Social Disadvantage: Three Paradigms of Social Exclusion. in Social Exclusion: Rhetoric, Reality, Responses. edited by G. Rodgers, C. Gore and J. Figueiredo.
- Silver, H.(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5-6), pp.531~ 578.
- Ward, N.(2009) 'Social Exclusion, Social Identity and Social Work: Analysing Social Exclusion from a Material Discursive Perspective', Social Work Education, 28: 3, pp.237-252.
- Yllo, Kersti & Michele Bograd(1988), Feminist Perspectives on Wife Abuse, CA: Sage.
- <http://www.encyber.com/> (두산백과사전)

## The experience of social exclusion in the context of domestic violence

Lee, Hee Youn\* · Park, Tae Jeong\*\*

This paper examines how abused women's experience of social exclusion is structured. A research using the qualitative methodology of phenomenology is conducted on abused women's experiences with social exclusion. Nine women who had experiences of domestic violence participated as interviewees. Here, direction for analysis was taken from the specific steps outlined by Giorgi. Data analysis revealed that all of them were living in exposure of social exclusion and great fear for their safety. Battered women's experience of social exclusion was structured as six components : (1) Unequal power relationship (2) To endure domestic violence alone (3) Repeated violence, dilemma of forgiveness (4) Untouchable taboo space : Home. (5) Bounded lives without oneself (6) Deep-seated patriarchy of domestic violence. As those components of social exclusion interacted with domestic violence, abused and battered women were continuously exposed to more severe-ongoing suffering.

**Key words:** Social exclusion, Domestic violence. Phenomenology. Qualitative research.

---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Cyber University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Cyber University